

최초의 와당 속에 문자는 한민족의 시조와 고조선 건국 시기를 알려준다

최초로 와당(瓦當)을 창안한 민족은 한반도 대동강 유역에서 고조선을 세웠던 건국 주체세력이다. 고조선 건국 초기에 제작된 와당에는 음양(陰陽)의 세상이 끝나고 무극(無極)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비밀이 담겨 있으며, 후손들에게 꼭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message)가 표현되어 있다.

기왓장의 암키와와 수키와는 음양(陰陽)을 상징하며 와당은 무극시대를 염원

기와는 암키와와 수키와로 구성되어 있는데, 암키와는 큰 원통을 세로로 4등분한 형태로서 여와(女瓦) 또는 평와(平瓦)라고 부르며, 수키와는 원통을 세로로 2등분한 형태로서 남와(男瓦) 또는 원와(圓瓦)라고 부른다. 마치 총살 집행장에서 서 있던 사람들이 총탄에 맞아 죽을 때 여자는 뒤로 눕고 남자는 앞으로 쓰러지는 것처럼, 암키와를 바닥에 깔고 수키와로 그 이음새를 덮어서 용마루에서 처마까지 기왓골이 나게 된다. 이렇게 용마루에서 처마까지 암키와와 수키와로 중첩되어 있는 모양새가 유구한 세월 동안 죽음이 진행되어온 음양(陰陽)의 세상을 대변한다.

그리고 기왓골 끝에 마지막 수키와는 원형으로 막는데, 이 부분을 수막새 또는 원와당(圓瓦當)이라 한다. <기왓골 끝에 마지막 수키와>는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 되었나니(고전 15:45)”라는 성경 구절에서 <마지막 아담>을 상징한다. 마지막 수키와에 부착된 와당(瓦當)이 태양처럼 원형으로 마감된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마지막 아담으로 오시는 구세주에 의해서 무극(無極)의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웅변한다.

대동강 유역에서 출토된 와당에

한민족의 시조 '단'의 이름이 고대 히브리어로 새겨져 있다

『단(단)의 독수리 와당』에서 올드네게브(Old Negev : 모세 시대와 사사 시대에 사용한 고대 히브리어) 문자로 새겨진 문양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독수리와 같은 저 단(단군)의 백성들이 여기에 정착하게 될 것이다”

단(단: Dán)의 독수리 와당은 단지파의 백성들을 독수리로 비유한 와당으로서 고조선의 수도 부근(대동강 유역)에서 발견되었으며, 또한 이 와당에 기록된 내용에 따르면 단군의 백성(단지파 백성)이 한반도에 도착하여 정착한다는 뜻이다.

이처럼 한민족은 일종의 신(神)의 계시를 받은 특정 장소에 정착하여 나라를 세우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일례로 한민족의 한 갈래로 보이는 멕시코 원주민들이 남긴 고대 그림문헌에는 그들의 조상들은 원래 위가 평평한 파라미드가 있는 아스팡(Azlan)에 살았지만 “왕(王)이자 제사장(또는 무당) 되는 기질(Huitzil)이 떠나자, 우리의 신이 새로운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선포하여 아스팡(Azlan)을 떠나 멕시코로 오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 손성태, 『우리민족의 대이동: 아메리카 인디언은 우리민족이다(멕시코편)』 p.287 인용

오엽화 와당은 한민족이 무궁화를 잘 가꾸고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는 『오엽화 와당』에 올드네게브 문자가 새겨져 있는데, 대윗 시대의 고대 히브리어 보다 약 400년 앞선 원시 히브리어 문자이다. 이 문자는 모세 당시 십계명 석판에 새겨진 문자와 동일한 것으로 추정된다.

『오엽화 와당』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사라진 단지파가 지금으로부터 3200년 전에 가나안 소라성읍을 떠나 동으로 이주할 때, 시리아에서 채집한 무궁화 꽃씨를 한반도에 가져와서 널리 전파하고자 독려하는 내용이 새겨져 있다.

그런데 “무궁화나무의 어린 묘목을 추위로부터 잘 보호하자”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는 이유는 아마도 한반도 평안도 이북 즉 함경도나 만주에서는 겨울의 혹독한 추위로 무궁화 재배가 불가능하였고, 고조선의 수도가 자리 잡고 있는 평안도 대동강 유역에서는 추운 겨울에 어린 가지를 잘 보살피면 생존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천제단(天祭壇) 주변에는 무궁화를 심었다는 전설이 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집 대문기와의 무궁화 와당으로 장식된 것은 영생하는 무극시대를 곧 맞이한다는 뜻이다.*



▲ 4점의 와당: ① 12지파 와당, ② 꽃무늬 와당, ③ 단(Dan)의 독수리 와당, ④ 오엽화 와당
고조선 건국 초기에 제작된 4점의 와당에는 고대 히브리어가 새겨져 있는데, 고대 가나안 텔 라기스(Tel Lakhish) 사원에서 발견된 올드네게브(Ewer) 표면에 새겨진 올드네게브 문자(원시 히브리어)와 일치한다. 고고학적인 유물의 연대 측정결과 기원전 1220년경의 물단지로 확인되었다.

한민족과 아메리카 원주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동족



기원전 1220년경의 물단지(上)와 북미 암각화에 새겨진 올드네게브(下)

올드네게브 문자가 일부 합자로 표현되는 특징은 초성·중성·종성으로 조합된 한글과 닮았다

기원전 1200년경에 『올드네게브 문자(원시 히브리어)』가 사용되었다면,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에 단지파의 삼손이 활약하던 때와 일치한다.

올드네게브(Old Negev)의 합자어(合字語)에 익숙한 단지파 민족이 알타이산맥에서 우거할 때에 북쪽 시베리아별판으로 동쪽 몽골평원 또는 중국 섬서성 기산으로 분파되어 나갔는데, 특히 중국에서 주나라를 세운 단지파는 올드네게브의 합자어 형태를 본 뜬 한자어를 창제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그리고 단지파의 주류가 몽고평원을 거

쳐서 한반도에 정착한 지 약 2500년이 지나서 한글이 창제되었는데, 한글 또한 이스라엘의 올드네게브 합자어 형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몽고평원을 거쳐서 한반도로 유입되거나 계속해서 동으로 이동한 단지파는 아메리카대륙의 원주민이 되었는데(손성태 교수의 책 『한민족의 기원』 참조), 물론 교는 이스라엘의 고대인들이 미국에 정착했다고 믿고 있지만 그 고대 이스라엘 사람이 단지파 사람임을 아직 알지 못하고 있다.

아메리카의 남서부에 정착한 단지파 사람들은 바위에 올드네게브의 문자를 많이 새겼다. 이스라엘의 네게브 사막에서 발견된 올드네게브 문자의 암각화가 미국 남서부의 암각화에서도 거의 유사한 형태

로 발견되자, 고고학자 제임스 해리스(James Harris) 박사는 저서 『The Name of God: from Sinai to the American Southwest』를 통해서 암각화의 올드네게브 문자를 현대 히브리어와 비교 분석하였다. 그의 책에 실린 이스라엘에서 출토된 물단지(북미 암각화에 새겨진 올드네게브 문자와 고조선 수막새에 새겨진 올드네게브 문자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는 한민족과 아메리카 원주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동족임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라 하겠다.

무궁화 와당

『오엽화 와당』에서 다섯 꽃잎(the five-

무궁화 와당 (고조선 시대 유물)



무궁화 꽃잎이 다섯 개로 이루어진 특징을 표현

leaves flower)이 ‘무궁화’라고 추정할 수 있는 근거는 동일한 시대(고조선 시대), 동일한 장소(대동강 유역)에서 출토된 무궁화 와당이다. 무궁화(Rose of Sharon)의 학술명이 (Hibiscus Syriacus L.)로서 이 꽃의 원산지가 레바논과 시리아 근처이다. 이러한 점은 한반도 대동강 유역에 고조선을 세운 한민족이 지중해 연안에서 이주해온 단지파 민족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준다.*

기와는 지중해 연안국에서 동양으로, 와당은 한반도에서 중국으로 전파

가장 오래된 S자형 기와 기원전 1600년경 그리스 레르나 지방에서 발견돼

그리스 펠로폰네소스반도의 남쪽에 있는 레르나(Lerna)에서 발굴된 담장 위에 얹어놓은 고대 S자형 기와는 기원전 1600년경 크레타 문명을 받아들여면서 활발한 해상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한 미케네 문명 시대로 연대기를 확정할 수 있었으나, 그 기와의 제작자는 그리스 본토 사람이 아니고 양을 치는 어떤 외국의 상인이라는 것이 고고학자들의 한결같은 결론이다. 그리고 고대 S자형 기와 담장 주변에 이집트에서 유입된 주걱용 식기류와 술가락 등이 함께 발견된다는 점이다.

고조선의 초기에는 도피성에서만 원형 와당을 사용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 직분을 담당했



레르나(Lerna)에서 발굴된 담장 위에 얹어놓은 고대 S자형 기와

던 레위지파의 사람들이 도피성이라는 구별된 성읍을 차지하고 살았던 것처럼, 한반도에 도착한 이스라엘 단지파 민족도 천제를 지내는 곳에 제사장들만 살게 하고 일반 사람의 출입을 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풍습이 후대에 전해져 삼한 시대에는 천신에게 제사지내는 지역을 소

도(蘇塗)라고 하였다.

고조선 초기 도피성의 위치는 평안남도 대동군 임원면 상오리(上五里)로 추정되는데, 그 도피성 안에 천제단의 담장과 제사장이 거하는 신전 지붕에만 원형와당(圓形瓦當)을 특별히 장안하여 사용하였고, 일반 백성들이 사는 마을에는 반달

모양의 반와당(半瓦當)을 허용하였다. 그래서 고조선에서 중국 주(周)나라에 처음으로 전래된 와당은 반와당이었다. 마찬가지로 반와당은 중국 춘추시대에 고조선과 국경을 마주하는 연나라로 전래되고 또한 고조선의 황해(黃海) 건너편에 있는 제(齊)나라에도 전래되었다.



고조선 시대에 제작된 암키와 및 원형와당(圓形瓦當) 직경 17.4cm, 국립중앙박물관 이우치이사오 기증실

이렇게 지붕에 기와와 와당으로 장식한 기와집이 연나라와 제나라에 전래되었는데, 연나라는 도철문 와당이 유행하였고 제나라는 수목문 와당이 유행하였다. 춘추전국시대를 종식시키고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秦)나라에도 고조선의 원형와당이 전래되었는데, 진나라는 동물문 와

당이 유행하였다. ※ 중국 최초의 기와는 주(周)나라 말 연(燕)의 하도(下都)인 역현(易縣) 또는 제(齊)의 국도인 임치(臨淄) 등에서 출토된 예가 있으나 이곳에서는 반월형의 와당을 포함한 많은 기와의 발견이 보고되었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와당(瓦當))]*



본부제단 032-343-9981~2

전국제단 및 해외제단 연락처

- 역곡제단 : (032)343-9981-2
- 수원제단 : (031)236-8465
- 안성제단 : (031) 673-4635
- 부산제단 : (051)863-6307
- 영도제단 : 010-6692-7582
- 김해제단 : (055)327-2072
- 대구제단 : 010-6530-7909
- 마산제단 : (055)241-1161
- 진주제단 : (055)745-9228
- 진해제단 : (055)544-7464
- 영천제단 : (054)333-7121
- 사천제단 : (055)855-4270
- 순천제단 : (010)3661-9025
- 정읍제단 : 010-8628-2758
- 군산제단 : (063)461-3491
- 대전제단 : (042)522-1560
- 청주제단 : 010-5484-0447
- 충주제단 : 010-9980-5805
- 양평제단 : 010-2945-8254
- 橫濱祭壇 : (045)489-9343
- 神戸祭壇 : (078)862-9522
- 下關祭壇 : (0832)32-1988
- 大阪祭壇 : (06)6451-3914
- Sydney : (006)0415-727-001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